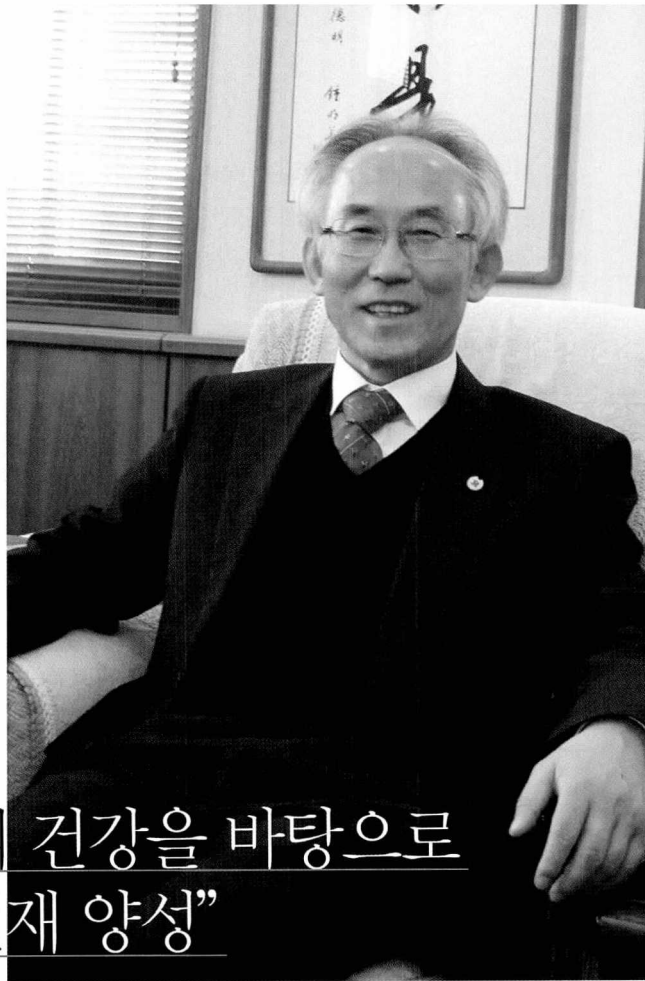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

김민박(연속) 기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탕으로  
실력 갖춘 인재 양성”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철이 시작되었다.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히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학교가 제시하는 비전과 나의 비전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젊음과 낭만의 도시 춘천에 자리잡고 있는 강원대학교가 수도권대학의 블루칩을 자처하며 2008년도 학생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을 만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부터 강원대학교의 비전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인터뷰를 위해 강원대학교를 찾은 날은 마침 수시모집 면접전형이 있던 날이었다.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올해로 개교 60년을 맞이한 강원대학교 전경

오늘이 면접일인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지?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는 올해 수시에서 1,371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2,20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 수시모집은 경쟁률이 4.75대 1로 예년에 비해 경쟁률이 높는데, 학교측이 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의 실력이 곧 부모의 능력의 바로미터처럼 인식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강원대학교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다듬어질 수 있는, 도전의식과 창의력, 젊은이다운 패기와 자신감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최대한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이상과 현실은?

교육이 학생들의 역량과 자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충분히 수용하고 바뀌었느냐 보다는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이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준비에 매달리다가 대학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우리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이 '정신적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보통 지방대학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대학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생의 수준이 무척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잠재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대학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빛대지면 저평가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학비는 절만 미만이지만 장학금, 기숙사 등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져 올 입시에서 보다 실력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 학생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입생의 42%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2009년 3월 즈음이면 1,89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통여건도 타도에 비해 좋은 편으로 서울 강남에서 춘천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말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위기는 대학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대학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도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은 충분해도 지금까지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진 교육현실에서는 세계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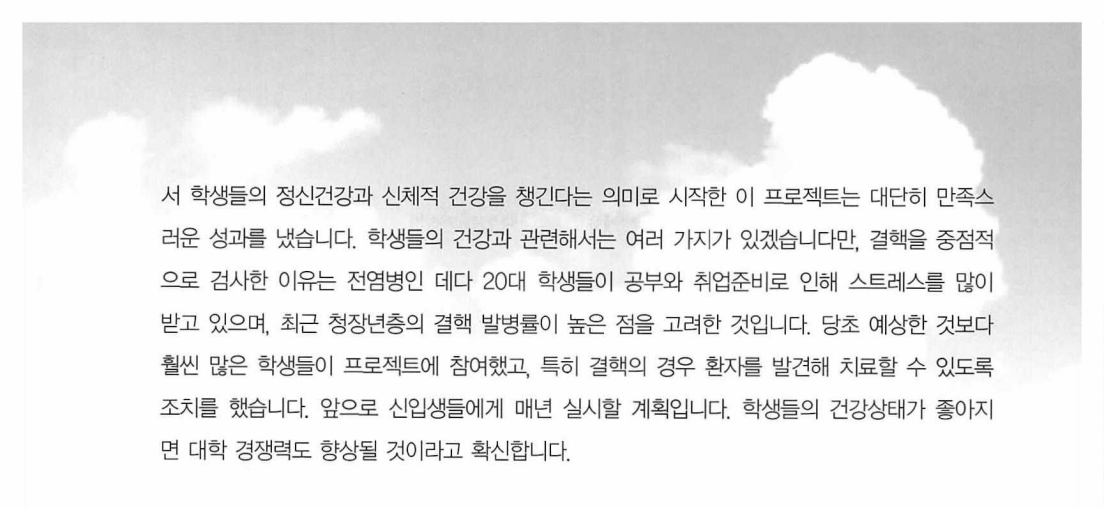
학생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지난 가을 '강원대생 건강챙기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3,600명 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성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핵검사는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의 도움을 받아 실시했으며 성격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 재학생들의 54%가 결핵검사를 받았고, 성격검사에도 42%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무척 충격적이고, 교육이 무엇인지 되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학생 개개인의 인성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가 직접 나서



지난 9월 대한결핵협회가 강원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결핵검진 모습.



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핵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이유는 전염병인 데다 20대 학생들이 공부와 취업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 청장년층의 결핵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결핵의 경우 환자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입생들에게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대학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는 강원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개교 60주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고 축배를 드는 대신 새로운 60년을 맞이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와 학생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60년을 위해,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면학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연구신장률이 26%씩 증가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강원대학교는 로스쿨 유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80명으로 확정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안을 확정하고, 장학금도 1~3학년까지 총정원 240명을 기준으로 법정 기준 20%를 상회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등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더 길게는 학교 안에 ‘메디케어 빌리지’를 조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됩니다.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학교내의 제반 시설과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평생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주거 단지, 나아가 생명, 건강을 연구하는 복합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놓인 대학이 체질개선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에서 CEO의 역할이 중요하듯 말이다. 최현섭 총장과의 인터뷰는 한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CEO의 올곧은 교육관과 독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해 강원대학교, 나아가 한국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